

신라 사람들의 중국 여행

2017. 11. 21.(화)

권덕영 *

1. 누가 중국을 여행했을까.
2. 여행 절차는 어떠했을까.
3. 어느 길로 왕래했을까.
4. 얻은 것은 무엇일까.

1. 누가 중국을 여행했을까?

여행이란 귀환을 전제로 사업이나 유람 등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신라인의 중국여행은 신라 사람이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라의 범위를 넘어 중국으로 가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의 대중국교섭 혹은 왕래는 수·당대부터 본격화되었으므로 신라인은 주로 중국의 당나라를 여행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여행이라 하면 우리는 으레 유명 휴양지나 만리장성 혹은 자금성 같은 유적지를 둘러보고 백화점에 들러 쇼핑하고 돌아오는 ‘관광(tour)’을 연상한다. 그러나 신라 사람들은 관광을 위해 중국을 여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일(business)’ 때문에 중국을 여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신라에서 중국을 여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수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신라가 중국에 파견하던 사절단 곧 견당사를 들 수 있다. 신라의 사절단으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하정사(賀正使), 중국 왕조로부터 특별한 시혜를 입었을 때 보내는 사은사(謝恩使) 등의 각종 명목의 사절단이 있었다. 특히 신라는 당나라에 약 170여 차례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 주변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절단을 당에 파견하였다.

둘째, 서학 구법승과 유학생이 있다. 법흥왕 혹은 진흥왕대의 각덕(覺德) 이후 수많은 신라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가 공부하고 돌아왔다. 특히 원광 이후 신라에서는 이른바 ‘서

* 부산외국어대학교 역사관광외교학부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현).

『한국의 역사 만들기-그 허상과 실상』(2015, 새문사), 『역사의 바다 황해』(2012, 일조각),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2005, 일조각), 『고대한중외교사-견당사연구』(1997, 일조각)

학(西學)' 붐이 일어날 정도로 중국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 이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꾸준히 귀족자제들을 국자감 등의 당나라 교육 기관에 보내 공부하도록 했다.

셋째, 무역 상인을 들 수 있다. 주로 사무역이 성행한 9세기 이후 많은 신라 상인들이 중국을 왕래하며 국제무역에 종사하였다. 장보고의 청해진 선단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거니와, 그들은 주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랄까 후원을 받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왕래하였다.

2. 여행 절차는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가 중국을 여행할 경우 여권 제작, 비자 발급, 출입국수속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신라인이 중국을 여행할 때도 이와 유사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 무엇보다도 여행자에 대한 신라와 당의 출입국 관리가 엄격하였다. 국제전산망이 갖추어진 오늘날의 출입국 관리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나름의 철저한 출입국 관리 체제를 운용하였다. 신라의 출입국 관리에 대한 사례로는 814년 적인선사 혜철(慧徹)의 신라 출국 심사, 847년 대마도 백성들의 신라 불법 입국에 대한 조치 등이 있다.

당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는 신라 보다 더 엄격했다. 신라 사람이 당을 여행하고자 하면 도착지 관청에 ① 입국 신고서 제출(여행 목적, 일정, 자기 진술서 혹은 추천서) ② 상급관청에 보고(주 혹은 절도부에 보고, 입국 허락 이전에는 개인행동 제한) ③ 여행증명서인 공험(公驗) 혹은 과소(過所) 발급(국적과 신분, 나이, 여행 목적, 경로, 소지품 목록 적시) ④ 매 주(州)마다 새로운 여행증명서 발급(앞의 과정을 반복).

만약 당나라 왕조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체류 혹은 여행하다 발각되면 곧바로 추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비록 신라 사람은 아니지만, 838년에 입당한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사례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엔닌은 단기유학생으로 일본 사절단을 따라 당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장기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사절단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신라 승려 행세를 하며 내륙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당나라 주민의 신고로 중국 관원에게 체포되어, 귀국하는 일본 사절단의 배에 강제로 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이탈하여 결국은 재당신라인의 도움으로 마침내 체류를 허락받고 각지를 여행할 수 있었다.

엔닌이 중국 땅에 불법 체류한 지 하루 만에 발각되어 추방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허락 없이 여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신라 사람이 불법으로 중국을 여행했다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3. 어느 길로 왕래했을까?

오늘날 우리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쉽고 편하게 중국을 왕래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신

라의 수도 경주와 당의 수도 장안을 기준으로 할 때, 신라와 중국과의 교통로는 크게 북쪽 길(北路)과 남쪽 길(南路)로 나눌 수 있다.

북쪽 길은 당은포로(唐恩浦路), 황해 해로, 장안로(長安路)로 구성되었다.

① 당은포로 : 경주-영천-하양-선산-상주-소백산맥(계립령)-충주-남한강 수로 혹은 육로-당은포

② 황해 해로 : 당은포-덕적도-강화도-옹진반도-장구진(장산곶 부근)-백령도-황해 횡단-등주(중부 횡단항로)

장구진-초도, 신미도-압록강구-요동반도-도리진-묘도열도-등주(북부 연안항로)

③ 장안로 : 등주-청주(靑州)-치주(淄州)-제주(齊州)-운주(鄆州)-변주(汴州)-낙양-화주(華州)-장안

남쪽 길은 회진로(會津路), 황해 해로(남부 사단항로), 장안로로 구성되었다.

① 회진로 : 경주-대구-소백산맥(팔랑치와 여원치)-남원-광주-회진

② 황해 해로 : 회진나루-양주, 명주, 항주(남부 사단항로)

③ 장안로 : 양주(명주, 항주)-강남하(江南河), 변하(汴河)-변주-낙양-장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전이다. 중국을 여행하던 신라 사람들도 나름대로 안전한 코스를 선택해 여행하였다. 중국 여행에 있어서 안전의 관건은 황해를 무사히 횡단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는 서양의 갤리(galley)선과 달리 돛이 주 추진 장치이고 노는 기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에 불과하였으므로 바람의 방향에 매우 민감하였다. 그래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겨울과 초봄에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북쪽 길을 택하였고, 남서계절풍이 부는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귀국하는 신라인들은 남쪽 길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을 여행하던 신라인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황해를 건너던 도중 조난을 당하여 바다에 익사 혹은 표류하거나 육지 여행 중에 중국의 음식과 토양에 익숙하지 않아 질병으로 사망하고 혹은 해적과 초적들의 습격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특히 황해 횡단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었으므로, 여행객들은 해상 조난의 위험으로부터 위안을 얻기 위하여 불교의 관음신앙을 특별히 존중하였다.

4. 얻은 것은 무엇일까?

신라 사람들의 중국 여행은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여행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고 고급문화를 터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은 중국 여행을 통하여 한 차원 높아지고 세련되어 갔다.

첫째, 신라인들은 중국 여행을 통해 신문물을 수용하였다. 중국 왕조 가운데 신라인들이 가장 많이 중국을 여행했던 당나라 시대는 중국 문화의 완숙기였다. 견당사와 구법승 그리고 유학생들은 중국 여행을 통해 당의 발달한 정치제도, 학술과 사상 그리고 종교를 받아들여 신라화하였다. 그리고 무역 상인들은 공적 혹은 사적 교역을 통해 신라의 물질적 풍요에 기여하였다. 신라의 중국 여행의 결과로 초래된 당 문화의 수용은 신라사, 나

아가 한국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중국 여행은 신라인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면에서 세계에 대한 시야를 확대시켜 주었다. 7세기 초 중원을 통일한 당은 주변국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자, 세계 각국에서 사절단, 구법승과 유학생,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신라 여행객들은 당나라에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세계의 광활함을 인식하였고, 각국의 풍속과 문화를 파악했으며, 신라 문화의 특수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여행은 세계지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고, 자신(신라)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신라인들은 중국 여행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그것이 신라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라가 중국 문화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그것을 숭상하는 경향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나타났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21세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신라 ‘자주의식’의 약화 혹은 상실이 아닐까 한다.

신라인의 자주의식 약화(상실)의 징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당 중심의 세계질서에 지나치게 충실하여, 스스로를 중국의 제후국으로 인식하였고 서학을 신라문화 계발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자기 비하는 곧 신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라문화의 독자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풍조는 물질문화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외래품 곧 ‘당물(唐物)’을 숭상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신라 사람들의 중국 여행을 통해 조성된 이러한 자주의식의 약화와 상실은 고려와 조선시대 일부 지식인들의 맹목적인 존화주의(尊華主義) 혹은 사대사상으로 이어진 어두운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견당사연구』, 일조각
권덕영, 2005,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권덕영, 2012, 『역사의 바다 황해』, 일조각
한국역사연구회, 2005,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경상북도, 201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국제교류』, 신라사대계 12
경상북도, 2016 『신라 불교계의 새로운 동향과 선종』, 신라사대계 14
경상북도, 2016 『신라를 빛낸 인물들』, 신라사대계 22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